

땅과 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휴식처



▲ **빽빽한 도시의 생활 속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
푸르른 5월의 초순도 이제 다 지나고, 어느덧 중순이 다가왔다. 시간이 지난만큼이나 푸른 잎사귀들이 이제 온 땅을 뒤덮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푸른 하늘 아래 싱그런 녹색의 향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여유로움을 한껏 선사한다.

▲ **봄을 맞이한 유천생태습지**
익산시 동산동 주민들에게 안긴 선물, 유천생태습지공원에도 푸르른 봄의 전령들이 찾아왔다. 매서운 추위를 버티내고, 드디어 생태습지공원으로써의 모습을 이제는 제법 갖추어가고 있다. 산책로 양 옆으로 핀 이팝나무 꽃은 공원의 풍경에 화사함을 더해준다. 파리하게 올라온 잔디와 어린 나무 가지에 수줍게 얼굴을 내민 나뭇잎사귀들이 제법 생태공원의 티를 내보려 노력 중이다.
이제 공원을 찾는 이들도 하나·둘 씩 늘어 지난 겨우내 쓸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일상 속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며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이들이 곳곳에 눈에 뜨인다. 굳이 여럿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법하다. 조용히 자연을 대할 때는 혼자여서 더 좋을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 **땅과 물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만드는 곳**
유천생태습지의 기본 테마는 땅과 물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이다. 빌려 쓰는 대지(땅)에 자연의 건강함을 선사하고, 건강한

땅에 스민 깨끗한 물의 기운을 하늘로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며 나누는 공간을 유천생태습지공원의 이야기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 만경강 지류의 분기수인 유천에 인위적인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 사이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물과 땅이 하나 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1.1km에 이르는 물길에 꽃창포와 갈대, 부들과 수련 등 6종의 수생 식물을 식재하여 습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소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와 대왕참나무 등 20여종의 나무들을 식재하여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아 놓았다.
이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잘 가꾸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될 듯하다.

▲ **친환경에 그 특별함이 있다**
유천생태습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물길의 원천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어 자유로 방류되는 물을 이용하고 있다. 즉,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한 번 더 자연의 힘으로 정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 수질관리에도 큰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공간을 시

소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20여종 나무 식재
수질기준 적합한 물 한번더 자연의 힘으로 정화 거쳐
순천만공원 축소해 만든 '하늘마당' 상징적 장소로 '눈길'

민들에서 제공했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유천생태습지에는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공원들과 별반 다른 특별함을 한 눈에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자연, 생태습지란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공원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고층아파트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이는 이 생태습지공원이 더욱 특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전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순천만공원의 것을 축소해 만든 하늘마당은 이 생태공원의 상징적인 장소로, 오르는 재미가 상당하다. 더불어 이곳에 오르면 공원의 모든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또, 바닥분수는 다가오는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
익산 곳곳에는 각각의 특색을 가진 공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며,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곳 역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곳이 생태습지 공원이란 점이다. 물론, 익산에 생태공원은 이곳 말고 한 곳이 더 존재한다.

영등동 소라산생태공원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했다. 두 곳은 생태공원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특징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소라산생태공원은 산을 기본으로 하여 주변에 작은 습지들을 조성하였고, 유천생태습지공원은 1.1km의 물길을 습지화하였다는 점에 큰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소라산생태공원은 곤충들의 생태계 복원에 그 무게가 실린다면, 이곳 유천생태습지공원은 수생식물과 어류들의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 생태계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서로 다른 생태계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될 이곳들의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잠시나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다.
무성해진 수생식물들과 물길을 휘젓는 물고기들과 먹이를 찾아 이곳을 찾은 철새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은 아닐 것 같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유천생태습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있다. 처음의 취지에 어긋남 없이 자연 그대로를 사람에게 선물하고 사람은 그런 자연에 감사할 줄 아는 공간으로 거듭나 익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한다.
/익산=장영림 기자

52th
WANJU-GUN

완주군
WANJU-GUN

다함께 열어나가는 으뜸도시 완주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로운 소통, 함께 만드는 완주

제52회 완주군민의 날

제52회 군민의 날

일 시 : 2016. 5. 12. 목, 14:00~

장 소 : 완주군청 문예회관

프로그램 : 축하행사, 완주군민대상 시상
공적 동영상 상영, 군민현장 낭독 등

축하공연

KBS 국악한마당

사 회 : 가애관 (KBS 아나운서)

출연자 : 소리꾼 남상일(판소리), 김혜란(구음검무), 박정욱(배뱅이굿), 서정미(대금), 아리수(민요) 등

박정욱

서정미

남상일